

양현종 스티븐스

호랑이군단 '원투펀치' 순위싸움 반격의 펀치



진화한 원투펀치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승을 싸아가고 있다.

KIA 투수 양현종과 스티븐스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다. 제구·구위 모두 부족했던 양현종

이지만 1.37의 평균자책점으로 8승2패를 기록하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운 오리 신세였던 스티븐스도 팔색조의 매력을 보여주면서 7승 고지를 밟았다.

양현종의 마지막 패전 경기는 4월30일 한화전이다. 이후



내 자신을 믿고 던졌다"고 말한다.

지난해 양현종은 윤석민이 떠난 자리에서 에이스로의 막중한 책임감을 배웠다. 국가대표로서의 경험 등도 양현종의 자신감을 키운 자선이 됐다. 자신감으로 위기를 넘겼고, 원래 실력이

나오면서 자신감은 더 커졌다.

스티븐스를 살린 것은 적응력이다. 스티븐스의 공 하나하나에 노심초사했던 많은 관계자. 그 중에는 윤석민도 있었다.

윤석민과 스티븐스는 지난해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산하 트리플이 A팀인 노포크에서 함께 뛰었다. 뒤늦게 윤석민이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올 시즌에도 동료로 지내게 된 두 사람. 스티븐스의 KIA행에는 윤석민의 추천이 있었다.

평균자책점 1.37·시즌 8승
위기 뛰어넘는 자신만만 배짱투
연패 끊고 연승 잇는 '에이스'

9경기 평균자책점 3.40·시즌 7승
상대따라 능수능란 팔색조 투구
팀 승률 5할 뚫기 든든한 지원군

9경기에서 패 없이 5승을 쌓았다. 9경기에서 59.2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자책점은 5점으로 묶였다. 평균자책점은 0.75가 된다. 이렇다할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스티븐스도 5월7일 NC전 승리를 발판 삼아 반전을 이뤘다. 최근 9경기에서 3.40의 평균자책점을 남기며 5승1패를 거뒀다.

자신감과 적응력이 숨겨진 무기다.

양현종은 스프링 캠프에서 공을 내려놓은 채 늦은 페이스로 시즌을 준비했다.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마운드에 오르면서 시즌 초반에는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고 했다. 양현종의 극적인 변화에는 밸런스가 있었다. 밸런스를 찾으려 힘은 덜 들이면서도 오히려 더 위력 넘치는 공을 뿌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다.

양현종은 "시즌 초반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내 불을 믿으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위기 때마다

윤석민은 "컨트롤은 좋지 않은데 구위로 승부를 하는 투수라고 내가 본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어서 추천을 해줬는데, (캠프에서) 구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웃음). 한국 야구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배워가는 것 같다. 투심 승부를 하는 등 이곳 야구에 맞춰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민을 난감하게 했던 스티븐스이지만 낯선 나라의 새로운 상대에 맞춰 변화를 시도하고 적응을 하면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다. 타자와 경기 흐름에 맞춰 빠르게 전략을 바꾸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스티븐스는 24일 NC와의 경기에서 1회 3실점을 했다. 하지만 급격히 흔들리던 시즌 초반과 달리 이후 실점 없이 5회까지 마운드를 지켰다. 5회를 넘어선 스티븐스는 타자들의 지원 속에 기분 좋은 승을 가져갈 수 있었다.

기술에 심리적인 무기까지 더한 원투펀치의 반격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작은 한·일전

세계 야구 '프리미어 12' 11월8일 일본서 개막

세계 랭킹 12개국 이 실력을 겨루는 야구 국가대항전 '2015 프리미어 12'의 경기 일정 및 대진이 확정됐다. 11월 8일 한일전으로 대회 막이 오른다. 프리미어12는 2년마다 치러오던 야구월드컵 대신 창설한 대회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주관하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개최 시기와 겹치지 않게 올해부터 4년 주기로 열린다.

프리미어12의 공식 개막전은 11월 8일 일본 삿포로돔에서 B조 한국-일본의 경기로 치러진다. A조 개막전은 11월 9일 대만 타이베이 인터컨티넨탈 스타디움에서 대만-네덜란드의 경기로 열린다.

조별 예선라운드는 11월9일부터 15일까지 대만에서 진행된다. 16일에는 각 조의 상위 4팀이 8강 토너먼트를 치르게 된다. 한국은 일본,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멕시코와 B조에 포함됐다. A조는 대만, 쿠바, 네덜란드,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이탈리아로 꾸러졌다.

4강이 맞붙는 준결승전(19일~20일)과 3, 4위전 및 대망의 결승전(21일)은 일본 도쿄돔에서 펼쳐진다. 8일 한일전을 치르는 한국은 11일 도미니카공화국, 12일 베네수엘라, 14일 멕시코, 15일 미국과 차례로 예선 라운드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허리 통증' 추신수 오클랜드전 결장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허리 통증으로 23일(현지시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홈경기에 결장했다.

텍사스 구단 홍보팀은 추신수가 이날 허리 쪽 경련으로 뛰지 않는다고 전했다. MLB닷컴은 추신수의 허리 상태를 매일 점검해야 하는 'day-to-day'라고 소개하고, 텍사스 구단은 추신수의 부상자 명단 등재 가능성에 대비해 마이네리기에 있는 외야수 마이클 조이스에게 콜업 대기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팀이 71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추신수는 시즌 7번째로 결장했다. 결장은 지난달 30일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 이래 24일 만이다. 추신수는 시즌 초반에도 등 통증으로 두 차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연합뉴스



'인기 짙' 차미네이터

차두리, 프로축구 올스타 팬 투표 중간집계 1위
광주 FC, 김호남·임선영·이종민 후보에 올라

'차미네이터' 차두리(FC 서울)가 K리그 올스타 팬 투표 중간집계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올스타 팬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24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한 발표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유니폼을 벗는 차두리가 10만2713표를 얻어 포항 김승태(9만6600표)를 제치고 전체 득표수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올스타 투표 1위에 빛나는 울산 수문장 김승규는 8만7표로 6만6788표를 얻은 권순태(전북)를 따돌리고 골키퍼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4명을 뽑는 공격수 부문에서는 전북의 투톱 '라이언킹' 이동국(9만5192표)과 K리그 클래식 득점선두인 에두(8만1015표)가 나란히 1·2위를 기록했다.

대표팀에 복귀한 수원 염기훈(9만4645표)은 2명을 뽑는 좌측 미드필더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2명을 선택하는 우측 미드필더 투표에서는 '라인 브레이커' 김승태가 1위에 올랐다. 4명

을 뽑는 중앙 미드필더 투표에서는 전북의 이재성(9만5520표)과 성남의 김두현(9만2264표)이 선두경쟁을 하고 있다. 각각 2명을 뽑는 좌측 수비수와 우측 수비수 부문에서는 수원의 홍철(6만8296표), 차두리가 1위다. 4명을 선발하는 중앙 수비수 부문에서는 전북의 김형익(8만7656표)의 독주 속에 서울의 오스마르(7만5948표), 제주의 알렉스(6만5380표), 인천의 요니치(6만2363표) 등 외국인 선수들이 치열한 2위 싸움을 하고 있다.

광주 FC에서는 김호남(좌측 미드필더), 임선영(우측 미드필더), 이종민(우측 수비수)이 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팀 최강화'와 '팀 슈틸리케'로 나눠 치러질 이번 K리그 올스타전의 선수단은 팬투표 결과(70%)와 K리그 클래식 12구단 감독 및 주장 투표(30%)를 더해 최종 확정된다. 팬투표는 네이버 모바일을 통해 오는 29일 자정까지 계속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금의환향 사상 첫 FIFA 여자월드컵 16강 진출과 첫승에 성공한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